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GRACE YEAR

가제 : 유예기간

저자 : Kim Ligget

출판사: Wednesday Books(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9년 가을

분량 : 약 38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수십만 달러 규모로 영국/호주뉴질랜드 pre-empt 출판 계약**

*** 『시녀 이야기』과 『파리대왕』이 만난 듯한 독특한 스릴러**

여성은 '부족한 존재'들로 여겨지고 태어나면 곧바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낙인이 흡사 가축마냥 발바닥에 새겨지는 마을에서 늘 '제임스 네 이상한 딸'로 불리던 티어니에게 마침내 '유예기간'이 다가온다. 열여섯 살, 모두가 소녀와 성숙한 여성의 경계선이라고 믿는 나이가 되면 결혼 적령기가 된 같은 마을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선택을 받는 일종의 의식이 치러진다. 그리고 선택 받지 못한 나머지 여성들은 집과 마을에서 분리된 야생 숲에서 캠핑을 하며 일년을 보내야 한다. 소녀와 여성의 매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시기에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온 동네 남자들이 전부 이성을 잃고 탐을 내는 바람에 멀쩡한 가정이 무너지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마법'이라 불리는 열여섯 소녀만의 오묘한 매력은 거친 자연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버티는 동안 자연히 사라지고, 그렇게 일년을 보낸 뒤에는 마을로 돌아와 일자리를 얻고 살 수 있다. 어려서부터 눈치도 빠르고 호기심도 넘쳤던 티어니는 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왜 생겨났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열여섯 살 소녀들에게서 어떤 마법이 발산된다는 것일까? 하지만 궁금증을 푸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엄격한 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티어니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노골적으로 반항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산채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들이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그러다 해도, 여성은 선택권이 전혀 없고 남자가 아내로 택하면 거절도 못한 채 무조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족쇄 같은 삶을 사느니 차라리 아무에게도 선택 받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 티어니의 결론이었다.

사실 온 마을 사람들과 가족 모두가 티어니는 어떤 신랑에게도 청혼을 의미하는 신부의 베일과 꽃다발을 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다섯 명이나 되는 자매 가운데 티어니가 가장 왈가닥에 말괄량이이고 타고난 예쁜 외모를 가꾸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사방팔방 밖에서 뛰어다니기

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약제상인 아빠는 그런 티어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들 하나 키우는 셈 치는 것처럼 낚시나 사냥도 가르쳐주며 즐거워했지만 엄마는 아니었다. 미모가 뛰어나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자신의 딸들 중에 청혼을 못 받아서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사는 아이가 생기는 것만큼 불명예스럽고 창피한 일도 없다고 여겼다. 티어니는 유예기간이 시작되는 날짜가 성큼 다가서자 엄마의 한숨도 깊어지는 것을 다 느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결혼을 하려고 애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저 빨리 이 괴상한 행사가 끝이 나고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 농사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누구에게도 삶을 기대거나 맡기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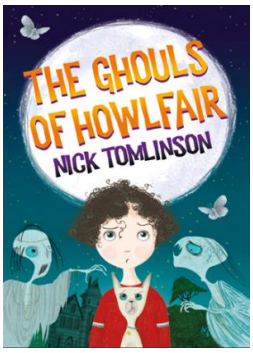
마을 사람 누구도 입밖에 내지 않았지만, 숲에서 보내는 일년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정식 주민으로 살지 못하고 수많은 죄목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외곽 지역에서 돈에 눈이 먼 '소녀 사냥꾼'이 호시탐탐 유예 기간 중인 여성들을 노린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들 손에 붙들린 소녀들은 어디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암시장을 통해 상품처럼 판매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젊음이 분출하는 마법, 그것을 일종의 엑기스로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 원료가 될 소녀를 제공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마을 외곽에서 매춘부로 평생을 살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티어니는 겁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었고, 누가 덤벼도 다 이겨내리라 마음 먹었다.

마침내 그 해의 유예기간이 시작되고 티어니는 함께 일년을 숲에서 보낼 다른 여성들과 만난다. 남자에게 선택 받아야 '정상'인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우정보다 경쟁의식을 느끼며 살아온 여성들은 마을에서는 절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불공평한 제도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꺼내기 시작한다. 남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악용하여 다른 여자와 살고 싶으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고발하기만 하면 죄 없는 아내는 마을 외곽으로 쫓겨나고 남편은 새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란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고 뜻을 모은 여성들은 티어니가 그리던 이상적인 세상,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 방법을 고민한다.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위험천만한 야생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며 변화를 꿈꾸던 티어니는 그 동안 소녀들만 지닌 마법이라 불리는 것의 정체와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를 발견한다. 남자들이 제왕과 같은 특권을 잃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자행해온 사악한 행위들, 그것이 밝혀지면 여성이 상품처럼 선택되고 거래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먼저 곳곳에서 티어니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자들을 피해 무사히 살아남아야 한다. 부당한 사회와 당당히 싸우고 꿋꿋하게 정체성을 지키며 성장해가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흡입력 있게 전개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킴 리게트(Kim Ligget)는 열여섯 살에 태어난 시골 마을을 떠나 뉴욕으로 가서 음악에 매진했다. 80년대 여러 록밴드의 백업 가수로 활약하는 등 대중음악 분야에서 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저서로는 『Blood and Salt』, 『Heart of Ash』와 2017년 브램 스토커 상을 수상한 『The Last Harvest』 등이 있다.

제목 : MOLLY THOMPSON AND THE GHOULS OF HOWLFAIR
가제 : 몰리와 하울페어의 전설
저자 : Nick Tomlinson
출판사: Walker Books
발행일: 2019년 10월
분량 : 약 28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아비 엘핀스톤(Abi Elphinstone)의 시리즈나 조너선 스트라우드(Jonathan Stroud)의 『LOCKWOOD AND CO』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들이 끌릴 만한 호러 2부작 중 첫 번째**

"캐롤 이모가 흡혈 박쥐로 변신해서 다락방에 몰래 숨어들어온 건 아닐까?" 엄마가 운영하는 엑셀시어 게스트하우스의 다락은 몰리가 절대 가면 안 되는 장소였지만 이런 궁금증이 생긴 이상, 몰리는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다. 엄마나 다른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몰리의 이런 의문은 터무니없는 상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틈만 나면 마을 도서관에 틀어박혀 하울페어가 처음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샅샅이 들여다보는 아마추어 어린이 역사가로써 몰리가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충분히 신빙성 있는 결론을 내놓아도 친구 로리 외에는 누구도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쟤 또 저런다"는 식의 비웃음과 성가시다는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다. 몰리는 하울페어에 대대손손 살아온 가족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았다. 그 집안에서 맨 처음 이곳에 정착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연으로 하울페어를 찾게 되었는지, 이후 대를 이어온 자손들이 마을의 다른 집안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다 보면 종종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드러나곤 했다. 문제는 몰리가 이렇게 밝혀낸 놀라운 진실이 세상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왠 꼬맹이 하나가 집안에서 쉬쉬하는 해묵은 비밀을 덜컥 온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바람에 현재의 고고한 이미지가 무너지거나, 먼 옛날 전염병이 하울페어를 덮쳤을 때 시신을 마구잡이로 쌓아 파묻은 자리에 번듯한 새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그런 흉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사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꽤 심각한 사건도 일어났다. 급전이 필요했던 땅 주인은 몰리 때문에 순조롭던 거래가 깨질 위기에 처하자 분노한 나머지 '몰리의 하울페어 역사 탐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몰리가 들쑤시고 다니는 꼴이 못마땅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은 너도나도 서명에 동참했고, 무려 절반이 넘는 주민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가 몰리의 엄마 앞에 도착했다. 모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게스트하우스에 손님도 부쩍 줄었다. 엄마를 그저 철없이 돌아다니는 줄 알았던 몰리가 생각보다 심각한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에 놀라 엄격히 딸을 단속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몰리 집안의 옛 조상들이 쓰던 물건이나 기록이 가득 쌓여 있는 다락도 접근금지 공간으로 선포하고 자료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도서관 출입카드까지 압수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할까? 왜 꽁꽁 감추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확신할까? 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도 더더욱 싫었지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의기소침해진 몰리가 역사가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심한 직후, 그 어느 때보다 몰리의 연구가 절실한 사건이 벌어진다.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 전설로만 전해지는 섬뜩한 존재가 어쩌면 하울페어에 다시 나타나 사람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낌새를 느낀 것이다.

모든 의혹은 몰리 네 게스트하우스에 자주 묵는 소설가 풀팻 부인의 원고 사이에서 발견된 편지에서 시작됐다. 평생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남편이 묻힌 장소가 창 밖에 보인다는 이유로 글이 잘 안 써질 때마다 찾아와서 꼭 그 창문이 있는 몰리 방에 며칠 묵곤 하는 풀팻 부인은 가끔 몰리에게 작업 중인 원고를 보여주고 의견을 구했다. 그 날도 갓 시작한 신작 소설의 첫 부분을 읽어보라고 건넸는데, 두툼한 종이 사이에 편지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풀팻 부인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유가 너무 이상했다. 낮잠을 자던 풀팻 부인이 '사람 먹는 귀신!'이라고 여러 번 외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주변에 '무덤 파는 아이'로 알려진 수상한 소년이 얼마 전부터 집 근처를 어슬렁대기 시작해서 가정부가 몇 번이나 부인에게 불길하다고 이야기했지만 풀팻 부인은 정확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괜찮다고만 얼버무렸다는 것이다. 편지 내용으로 볼 때, 가정부는 부인이 분명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 숨긴다고 확신했다. 왜 부인은 난데없이 사람을 먹는 귀신을 무의식적으로 여러 번이나 외쳤을까? 결국 역사 탐구를 금지하라는 엄마의 불호령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한 몰리는 하울페어의 소름 끼치는 전설을 발견한다. 지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예산과 아이디어를 쏟아 부어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토박이 주민들 외에는 외부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은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피부로 느끼는 음습함, 사람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악령이 하울페어를 손에 쥐고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몰리는 그 재앙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보려 하지만, 이번에도 몰리의 호소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이 무서운 귀신을 불러들여 주민 전체를 위협에 빠뜨린 사람이 다름 아닌 주민 모두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자선사업가라는 것을 밝혀낸 몰리는 시장 자리를 노리는 이 흉악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이 시장후보는 몰리의 의도를 눈치채고, 단단히 정신차리게 해줘야겠다고 결심한다. 착하지만 어수룩한 친구 로리 외에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몰리는 하울페어를 귀신과 자기 욕심을 위해 귀신을 동원한 자를 모두 물리칠 수 있을까? 몰리가 밝혀내는 비밀이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진진한 모험과 스릴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닉 톰린슨(Nick Tomlinson) 작사가, 영어교사, 연극강사, 특수아동교사로 활동해 왔다. 에딘버러에서 연극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 2004년에 출간된 『SAINT VALENTINE』이 있다.